

충남의 문화재 사업과 그 성과



유 상 곤
(柳商坤)

충청남도
문화체육국장

I. 97년은 문화유산의 해

연말의 정치일정이나 어려운 경제 등으로 나라안이 온통 시끄러운 가운데 정부에서 정한 “문화유산의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세인의 관심이 정치와 경제문제에 쏠려 있었기 때문인지, 과연 올해의 문화정책이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해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세상의 관심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간에 문화는 인간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문화정책의 책임자로서 이런 때일수록 주민들에게 문화적 자양(滋養)을 제공하고 그들의 향수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묵묵히 노력하였다.

II. 충남 문화재 사업의 성과

1. 도민들의 참여의식 진작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97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해주고 대국민 정책도 펼쳐온 까닭이기도 하지만 연초만 해도 국민적 관심이 우리 전통 문화유산에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몇 년동안 전통문화에 대한 책자가 베스트셀러가 되는가 하면 문화재를 찾아 떠나는 관광상품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런 경향에 힘입어 우리 것을 “알고 찾고 가꾸자”는 정부의 구호는 충분히 국민 정서에 어필되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문화재 사랑운동이 전개되었고 언론에서는 문화재에 관한 특집 기사로 우리 문화유산과 세계

문화유산을 비교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새롭게 조명하기도 했다.

이런 사회전반의 흐름에 고무된 우리도에서도 찬란한 백제문화를 간직한 문화도로서의 자긍심을 살려 여러 의욕적인 사업을 전개한 결과 문화재 보존 전승에 적지않은 결실을 거두었는바 문화재 애호에 대한 국민의 자율적 참여풍토를 진작한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수확이었다.

2. 백제문화권 정비사업

지난 70년대부터 추진된 사업인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은 우리 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대사업이다. 79년부터 시작하여 2001년까지, 무려 23여년에 걸쳐 총 637억원이 투자되는데 작년까지 435억원을 투자하여 모두 47건의 사업중 25건이 완료된 상태다. 찬란한 백제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융성 하였던 무령왕대의 문화가 고스란히 간직된 공주와 고대 동방 해양문화의 중심에 있던 백제가

역사에서 사라져간 마지막 비운을 지켜본 부여는 말 그대로 백제의 숨결 그 자체이다. 우리는 이 숨결을 되살리는 작업을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공주의 공산성과 부여의 부소산성 등 백제산성을 복원정비하고 송산리 고분군, 부여 궁남지 등 중요 사적을 정비하는 일이 전문가의 고증에 의해 철저하고 완벽하게 진행되어 이제 백제문화는 점차 원형을 회복하여 그 신비와 우수함을 우리에게 드러내 놓고 있다. 가장 벅찼던 것은 몇 해전 부여나성을 발굴조사하던 중 발견되어 세계를 놀라게 한 백제금동대향로였다. 세계 공예예술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 걸작 하나만으로도 백제문화의 우수성은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었다.

3. 국가 지방문화재 정비사업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마다 국비지원을 합쳐 100억원이상이 투자되고 있다.

97년에는 특히 문화유산의 해로써 대폭적으로 사업을 늘려 국가문화재에 45억원, 지방문화재에 44억원, 기타 도 자체사업으로써 79억원을 투자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80여억원을 들여 문화유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예는 쉽지 않은 경우이다.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건립 등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에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도 외형적 보수·정비에 치중되는 국비지원 사업을 보완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엄연히 개인 소유의 문화재인데도 관의 지원만 갈망하는 태도는 조상의 문화를 아끼는 문화민족의 태도는 아닌 것 같다.

4. 忠孝烈 시설물 정비사업

우리도에서 특색있게 전개하는 사업으로는 충·효·열 시설물 사업이 있다. 도내에는 모두 445개의 충·효·열 시설물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열녀문, 충효비문, 효자각 등 조상들의 위대한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이들 문화재는 그동안 비지정문화재가 많아 대부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역이나 역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해짐으로써 지역민들의 귀감이 되는 이들 시설물은 후세의 교육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이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97년에는 총 4억원을 들여 25개소를 정비하였다.

5.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유형의 문화재 못지 않게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에는 부여 은산 별신제 등 국가지정 6종, 공주 계룡백일주 등 도지정 19종으로 모두 25종의 무형문화재가 있으며 이를 전승하고 있는 기·예능 보유자들은 30명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이 문화재들은 유형문화재에 비해 전승·보존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시책 또한 어떻게 하면 이런 정신문화를 온전히 전승하는가에 치중하게 되는데, 기·예능 보유자들에 대한 지원은 가장 직접적인 대안이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들에게는 월 70만원, 도지정의 경우에는 월 30만원의 전승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국가와 도지정간의 격차도 문제지만 생계비에 못 미치는 지원금도 대폭 인상이 검토될 문제이다. 그들이 오로지 우리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 일생을 바치고 있는 진정한 장인들임은 물론이려니와 생계를 이유로 이의 전승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할 때 우리 것은 점차 사라져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예능 보유자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시책과 자료보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6. 문화재 안내판 정비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면서

언제나 아쉬운 점이 좀더 이해하기 쉬운 안내문안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지적도 있었고 실무자들도 느끼고 있는 점이다.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 명기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문화재라는 특수성 탓으로 안내문안에 전문용어가 사용되고 간혹 외국어 표기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에서는 올해도 62개소의 안내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안내판의 일원화된 규격도 과감히 탈피하여 그 지역 그 문화재의 특색에 어울리고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7.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은 그동안 문화재 관계자들의 하나같은 여망이었다. 그러나 작업이 워낙 어렵고 예산도 상당히 소요되므로 쉽게 착수를 못하였었다. 다행히 정부에서 문화유산의 해 특별사업으로 사업비 일

부가 지원되어 우리도에서는 부여지역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으며 98년도에 천안, 공주, 서산시의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계획이다. 얼마전 당진지역에서는 군 자체사업으로 이를 추진하였는데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각종 개발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멸실위기에 몰린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이보다 중요한 사업은 없다는 인식아래 문화재 분포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여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지표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로 지도가 책자로 인쇄되어 나오면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에 더 없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8. 문화유적 책자 발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한가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문화유적 책자 발간을 들 수 있다. 계룡산지, 금강지, 사찰지, 백제의 역사, 장승과 솟대를 비롯하여 충남의 문화유적을 총망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한

서적이 연차적으로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 얼마전에는 충남문화재 대관과 도서지를 발간하였다. 전문학자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원고를 집필하고 방대한 자료연구와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발간되는 이 책자는 앞으로도 영원히 충남의 문화유적을 연구하고 관리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학술서들이다.

사실 문화재 자체를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1차적이라면 이들에 대한 학술자료를 정리하여 남기는 일은 궁극적인 가치가 된다. 도에서는 전자에 소홀치 않으면서 아울러 후자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9. 기타 사업

“문화유산의 해”와 관련한 사업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문화재 우편엽서를 제작 배포하여 도민들이 충남문화재를 이해하고 선양하는데 기여하였고 공주민속극박물관 협조하에 아시아 1인극제를 개최하여 충남 공주를 아시아 1인극의 본

고장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전통음악의 보존전승을 위해 연정국악원을 개관하였으며 박동진 판소리전수관을 건립하고 있다. 석장리 구석기 유적 전시관을 건립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귀중한 구석기 문화재를 한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되었으며, 불교문화재를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써 정보박물관을 마곡사와 수덕사에 건립하고 있다. 백제문화와 당나라의 문화를 비교할 소중한 기회인 중국 낙양박물관 소장 백제문화재와 당나라 문화재를 함께 전시하고자 현재도 중국측과 교섭하고 있다. 계룡산의 산신제를 재현하기 위한 고증작업도 진행중이며 관내 각 박물관, 미술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매우 다양하고 유익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해”마무리 하면서 이러한 노력들은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모든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그 열매는 더욱 커지리라 믿는다.

III. 나가는 글

충남의 문화재는 모두 742점에 달한다. 서울, 경북 등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사업비 투자도 어느 도에 뒤지지 않는다. 도민들의 관심도 지대하고 문화적 자긍심 역시 높다. 이런 기본적 여건은 앞으로 우리도가 문화적 역량을 더 크게 기를 수 있는 잠재력이며 근원적 자양이다. 우리도에 서는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시책 추진에 열과 성을 다 하고자 한다. 백제장인의 후예답게 다가오는 21세기 새로운 문화중심을 이곳 충남에 두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각오이다. 경제부흥이나 사회발전도 문화의 토대가 튼튼할 때 가능하다.

서해안시대, 환황해권시대의 주역을 부르짖는 이때 우리는 문화적 뒷받침으로 이를 성취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전통문화가 세계문화의 핵이 되게 하는

문화적 기수로서의 역할을 자임한다. 아울러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창달하는 우리의 임무에 자부심을 갖는다. 우리 것은 조상으로 받은 소중한 유산인 동시에 다시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당대의 자산임을 잊지 않으면서 **열린충남**